더 밝은 미래를 함께 여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062-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혁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 최대단지!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76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9월 30일 (음력 9월 2일) 화요일

‘멜라민 사태’ 뒷북 행정 먹을거리 불안감 확산

정부·지자체 늑장 대응 … 감시 시스템도 허술

전국에 ‘멜라민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늑장 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유통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2·3·6·7면〉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26일부터 멜라민 성분이 검출된 해태제과의 미사랑 카스타드, 미사랑 코코넛, 밀크러스크 등 과자류와 커피크림 ‘베지터블 크림 파우더 F25’까지 총 4종에 대해 압류·봉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24일 멜라민 함유제품 수입·유통 금지 조치를 내려놓고도 단속지침을 지자체에 늑장 통보해 이뤄진 조치로, 동네 수퍼나 ‘구멍가게’에서는 멜라민이 검출된 제품이 버젓이 유통되는 등 ‘대책 따로, 유통 따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에 멜라민 검출시약과 지침을 늦게 제공해 광주시의 경우 멜라민 유통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 3일 만인 27일부터 과자류를 대상으로 성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광주시·전남도가 식품위생법상 관리 대상인 300㎡이상 대형 마트와 수퍼를 제외하고는 멜라민 함유 제품을 취급하는 중·소규모 업소 현황은 물론 유통 물량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도는 각각 200명, 180명의 위생담당 공무원과 명예식품 감시원 등으로 편성된 점검반을 뒤늦게 권역별로 파견해 현장에서 눈에 띄는 업소를 대상으로 ‘마구잡이식 단속’을 하고 있다.

평상시 위생점검 인력도 태부족이다. 광주시에는 식품·과자류를 취급하는 소형 가게가 1천500여개에 달하지만 지도·점검인력은 광주시 5개 구청을 통틀어 30여명선에 그치고 있다.

또 식품안전관리 업무가 농식품부, 식약청,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로 나뉘어 일원화가 안돼 있는 점도 부처별 ‘떠넘기기’로 이어져, 사태 발생시마다 소비자들의 피해로 번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종합대책을 수립중이지만 실효를 거둘지 의문이다. 당정은 29일 식품안전 대책으로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검역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보건복지부와 농수산식품부로 각각 나뉘어 있는 식품 검역체계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단일화하는 데는 조직 개편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 과제로 미루겠다는 입장이다.

김모씨(34·광주시 서구 풍암동)는 “정부가 식품안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내놓은 대책이 매번 헛구호에 그치고 있는 데 시민들은 누굴 믿고 음식을 사먹어야 하는 지 답답하다”며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멜라민 파문’ 385개 판매·유통 금지 품목

팔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멜라민 파문으로 중국산 유가공품 385개에 대해 일시 판매·유통 금지 조치가 취해진 가운데 해당 제품을 유통·판매하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29일 식품의약품안청에 따르면 판매·유통이 중단된 385개 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상 상황에 따라 처벌 대상이 제조·수입업체 또는 유통업체 등으로 달라지며 최고 징역 3년 또는 3천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다만, 동네 구멍가게 등 300㎡ 미만의 소규모 판매업소는 이번 식약청의 일시 판매·유통 금지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당장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다.

그러나 동네 슈퍼 등도 판매 금지한 제품이 위해물질이 들어 있는 제품으로 판명된 후에도 이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당할 수 있고 최고 징역 7년 또는 최고 1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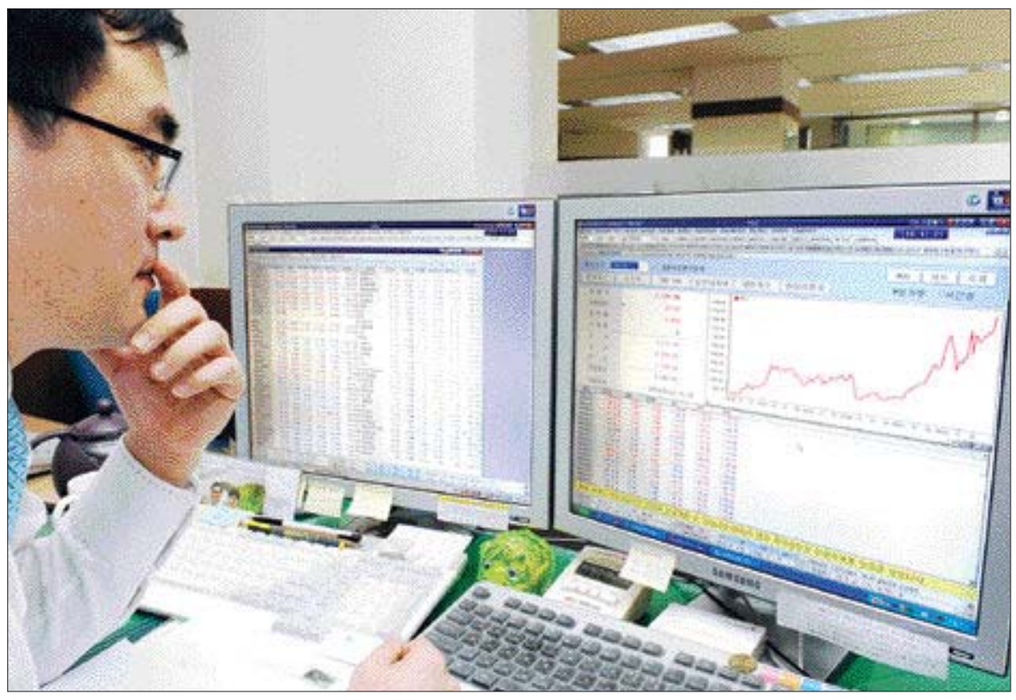
한편 식약청은 또 이날 44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멜라민 검사를 한 결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멜라민 관련 수거·검사 현황을 공개한 이래 이날 처음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에 따라 멜라민이 검출되지 않은 품목은 전체 검사 대상 428개 품목 가운데 40% 수준인 173개로 늘었다.

식약청은 그러나 같은 품목일지라도 제조일자가 다른 제품 가운데 멜라민이 검출될 우려가 있어 판매·금지 목록 305개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치솟는 환율 … 10년 전 ‘환란’ 보는 듯



29일 원·달러 환율 폭등으로 인해 코스피지수가 급락세로 돌아서자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의 한 증권사 직원이 환율 모니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환율 1200 육박 금융시장 ‘패닉’

대출금리 급등

미국발 호재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금융시장이 ‘공황(패닉)’ 상태에 빠졌다

주가도 환율에 발목이 잡혔고 은행의 대출금리는 7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관련기사 11면〉

29일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달러당 28.30원 급등한 1,188.80원으로 마감됐다. 이는 2004년 1월5일(1,192.00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이날 외환시장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금융구제 법안에 대한 합의에도 불구하고 크게 요동쳤다.

시장 참가자들은 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구제금융안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외화자금 시장의 달러 부족사태 등을 꼽았다.

또 은행 외환딜러들은 이날 환율이 장중 1,200원을 돌파하자 딜링룸이 10년 전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한 상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주가 역시 환율 폭등으로 인해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97포인트(1.35%) 떨어진 1,456.36을 나타냈다.

지수는 이날 장 초반 1,500선을 넘보기도 했으나 환율 급등의 여파로 한때 1,449.33까지 밀리기도 했다. 또 기관이 7천638억원어치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동향’에서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는 연 7.31%로, 2001년 8월(7.51%) 이후 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어 올랐다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우주·에너지·경제분야 협력 확대 정상회담 10개항 합의 공동성명

이명박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모스크바의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관련기사 4면〉

양 정상은 또 한국의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및 북한 경유 가스배관 설치 공동 연구,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 한국의 소형 위성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분야 협력 확대 등 에너지·자원. 경제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키로 합의했다.

양국 관계가 이처럼 격상됨에 따라 그동안 중심이 돼 온 경제분야 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안보,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질 협력이 확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상생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한 뒤 북 핵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 정상은 한국가스공사와 러시아의 가즈프롬을 통해 이르면 향후 15년 내에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이와 함께 무역 자유화를 위한 조치 검토와 함께 한국과 러시아는 물론 제3국에서 에너지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키로 했으며 극동시베리아 지역 공동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를 위해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를 통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국 정상간 긴밀한 교류 지속 ▲첨단과학 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양국 간 우주분야 협력 확대 ▲문화, 학술, 청소년, 체육 분야 교류 확대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사업 추진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양 정상은 회담 직후 단기·복수 사증협정, 광물자원협력협정, 가스공급 양해각서, 금융협력 계약 등 26건의 각종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